북한-이란, 광물-원유 물물교역

북한, 철광석 공급하고 원유·비료·철강 수입 … 가격·수량은 미정

북한과 이란이 광물자원과 원유를 교환하는 방식의 물물교환 무역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4월25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메흐디 가잔파리 이란 산업부장관은 이란의 반관영 메르(MEHR)통신에 "북한과 이란은 최근 물물교환 무역을 통해 광물자원과 원유를 거래하는 문제에 관한 회담을 열었다"며 "(회담에서) 양국은 교환할 자원의 목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환 자원의) 가격과 수량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며 "북한은 원유와 비료, 철강제품 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대가로 철광석 등을 (이란에)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로스탐 카세미 이란 석유장관도 4월20일 북한에 원유 수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양국정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배학 내각 원유공업상은 이란 테헤란에서 열리는 제18차 원유·가스·정제 및 원유화학 국제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4월16일 평양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25>